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18일(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감사관실	담당자	• 청렴윤리팀장 임미선 ☎440-3181 • 담당자 김수경 ☎440-3183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 2002년 평가 후 인천시 최초 최우수 1등급 달성 -
 - 반부패 정책 신규 발굴 등 다각적 노력 ... 지난해 보다 3개 등급 꺾총 -

인천광역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02년 평가제도가 실시된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시가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외부 민원인,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경험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청렴도를 평가하는 제도인 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년 정부부처,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273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제도 및 청렴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취지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시는 앞선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으나, 기존 청렴정책·제도를 도전적으로 개편·강화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 쇄신을 통해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노력, 부패방지제도 운영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웃도

는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체 기관 평균점수 84.7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이고, 2020년 대비 한 번에 3개 등급을 올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 매달 10일을 「청렴의날^{10.0}」로 지정·운영 ▲ 비위사건 발생사항이 표준지표 초과 발생 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을 하는 전국 최초의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 등 전직원의 청렴인식을 강화시키는 한편, ▲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확대 실시 ▲ 청렴대책추진단 운영을 비롯하여 실·국장회의시마다 시장의 적극적인 청렴의지를 피력하고 ▲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청렴문화를 전개했다.

또한, ▲ 공익제보 조례 개정 ▲ 청렴 매뉴얼 최초 제작 등을 통한 청렴정책 제도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시민감사관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등 민관합동 청렴활동을 강화시켰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인천시가 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